

11월의 기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 1.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외적인 모습보다 나의 내면의 마음과 영혼을 가꾸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3.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제 곁에 가까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4. 우리의 신앙이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해가 더해질수록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6.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주봉,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아직 희망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95세인데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고,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95세 생일을 맞던 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은퇴 이후 '이제 다 살았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3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지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갈렙은 85세에 꿈을 품고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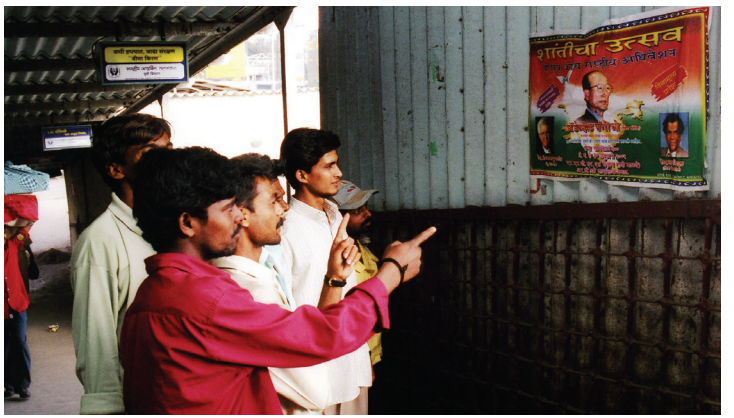


Nov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2년 해외성회

인도 푸네성회



기독교 2000년의 선교 역사에서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돼 로마, 유럽, 미국을 거쳐 아시아에서 전파되며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서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징은 대다수 국가들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토속종교 등 타종교 문화권으로 강한 전통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DCEM 11월호에서는 서남아시아권에서 개최된 2002년 2월 6일과 7일 제6회 2002 푸네(6th PFI - National Conference 2002 Pune)를 소개하고자 한다.

Fellowship of India) 주최로 SSPMS 대학운동장(Shri Shivaji Praprtry Military School)에서 개최된 성회는 연인원 10만 여명이 참석, 그리스도의 소망을 간구했다. '예수 - 평화의 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성회의 참석자들은 인도의 계급 사이에 드리워진 반목과 갈등의 벽을 뛰어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기를 기원했으며 가난과 고통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을 얻는 계기가 됐다.
DCEM 11월호에서는 서남아시아권에서 개최된 2002년 2월 6일과 7일 제6회 2002 푸네(6th PFI - National Conference 2002 Pune)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많은 힌두교인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성회가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도집회였다고 평가했다. 푸네 오순절교회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 결신한 약 2만여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등록카드를 나눠주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인도오순절협의회(Pentecostal

◎...이번 성회를 주최한 인도오순절협의회 아브라함 목사는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인들이 성회에 큰 관심을 보여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의 시작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부터 출발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 채우시는 하나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나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왕하 4:1~7)

채플에서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였는데, 설교가 끝난 후 한 청년이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히 어떤 사건이 맞아 떨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것이네.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데 마음을 쓴다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 생도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 2.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도움을 청하러 온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자, 엘리사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집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힘들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 3.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한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오천 명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후하고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비록 적은 양의 기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면,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너도 나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며칠 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빛이 4천만 원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빛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여전히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면,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그 인생도 예수님이 주시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마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의 생도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산터미 같은 빛을 남기고 죽었는데, 빛쟁이들이 찾아와서 “당장 빛을 갖고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1.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과 피곤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유명한 설교가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

# 순복음일본총회, 영산수련원서 2022년 총회 진행

## 순복음 열정으로 ‘일본 일천만 구령’ 전진



순복음일본총회 2022년도 총회가 10월 17~19일 경기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와 순복음일본총회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일본 일천만 구령’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17일 성령대망회에 강사로 초청된 이영훈 목사는 ‘성령을 받았느냐’(행 19:1~7)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일본 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 10년 동안 일본에 1만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 일에 순복음 선교사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일본 일천만 구령’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을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8일 오전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오순절 성령 운동’을 주제로 세미나 강의를 이끌며 “순복음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세미나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 과정을 교회 개척기(1958~1961), 성장발전기(1961~1973), 세계화 시기(1973~현재)로 나눠 조용기 목사의 목회 철학 ‘삼중축복, 오중복음, 4차원영성의 적용’을 설명했다.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삼중축복 메시지는 절망에 처해있던 한국사회에 꿈과 희망을 전했고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나온 삼중축복은 오중복음으로 확대돼 전파됐다”며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미 이뤄진 삼중축복·오중복음이 오늘날 삶속에 적용되면 우리의 생각 꿈 믿음 말이 절대긍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선교사들이 일본 성도들에게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신앙을 전하는 주역이 되어 조용기 목사의 목회 신앙을 계승해 나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순복음일본총회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는 “조용기 목사가 강조하신 일천만 구령 비전을 위해 일본 주요 도시마다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다. 순복음 사명으로 일본 복음화의 열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순복음일본총회 선교사들은 18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묘지의 조용기 목사 산소를 찾아 추모예배를 드리고 조용기 목사 기념관도 둘러봤다. 같은 날 저녁에는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예배가 열렸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온 해외 선교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들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동아시야선교회 전규원 회장과 부회장단이 참석해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목사안수식 및 총회 보고, 각 지방회 모임, 실행위원회 등이 진행됐다.